

개회사



제11차 여성친화도시 포럼

안녕하십니까?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이명선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빛내주신 최명희 강릉시장님, 이용기 강릉시 의회 의장님을 비롯하여, 강릉시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이 곳 강릉의 11차 여성친화도시 포럼에 참석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2009년 여수와 익산에서 시작된 여성친화도시는 2015년 현재 전국 57개 지자체로 확대되었습니다.

그 동안 추진되었던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공간 조성, 지역 여성의 일자리 창출, 지역 여성 공동체 활성화 등 다양한 사업들은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성공적인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보여주신 지자체 장(長)의 의지, 정책 담당자와 지역 시민의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사업 과정에서 나타난 지역 시민의 적극적 참여는 여성친화도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원동력이었습니다.

여성친화도시의 시민참여는 기존 지역 정책에서 나타나는 시민 참여와는 다릅니다.

소외될 수밖에 없었던 여성의 요구를 정책 전반에 반영함으로써 지역 시민 전체가 행복하고 양성평등한 정책 구현에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여성의 눈으로 지역 인프라를 점검해 정책 이슈를 발굴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여성 대표성 재고까지 전 과정을 시민, 특히 여성이 함께 함으로써 양성 평등한 지역 정책 조성에 앞장서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성공적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밑거름이 되어 정책 전반에 시민의 요구가 반영되는 추진체계 구축, 실질적이고 적실성 있는 정책 발굴 및 집행을 이끌어 온 것입니다.

이제 여성친화도시에서 나타나는 민-관 협력체계는 시민과 행정의 발전적 협력에서 한발 더 나아가 지역사회 여성 시민리더 발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에서 시민의 역량 강화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자, 성공을 위한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오늘 11차 여성친화도시 포럼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참여단의 역할과 참여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지역 정책의 새로운 주체로서 여성의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 같이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이제 모든 지역 주민이 행복하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양성평등 공간의 대표적 이름이 되고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이곳에 모이신 여러분들이 좋은 의견 함께 나누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6월 3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이 명 선

환영사



제11차 여성친화도시 포럼

안녕하십니까, 강릉시장 최명희 입니다.

제11차 여성친화도시 포럼을 축하드리며, 여성친화도시 강릉을 찾아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번 포럼은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확산시키고, 그 조성과 지평의 확대에 필수적인 시민참여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여성친화도시란 무엇일까요? 여성에게만 친숙한 도시일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일차적으로 여성이 살기 좋고 행복한 도시를 의미합니다만, 그 대상이 여성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성 뿐만 아니라 아동과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가 불편하지 않고 불쾌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은 도시, 그것이 여성친화도시입니다.

사회적 약자가 행복한 사회라면, 그 사회는 곧 모두가 행복하고 살기 좋은 사회에 한 걸음 크게 다가선 것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여성친화도시를 만들고, 가꾸고, 발전시킨다는 것은 곧 모두가 살기 좋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간다는 것에 다름 아닐 것입니다.

강릉의 경우 지난 2010년 11월,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을 받은 이래,

지난 5년간 ‘강릉시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제정을 비롯하여 제도적 기반을 튼튼히 하고,

시민참여단과 지역사회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접목하는 한편,

성인지 교육, 여성교육, 아동교육을 비롯해 각계 각층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을 진행해 왔습니다.

또한 980여일 앞으로 다가온 2018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여성친화도시 강릉의 이름에 걸맞는 도시 경관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시의 경험은 앞으로 여성친화도시의 확대와 실질적인 발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포럼을 통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진을 비롯한 여성정책 전문가 여러분과 우리 강릉시를 비롯한 57개 여성친화도시 공무원,

또 각 지역 여성/사회 단체 회원과 오늘 포럼에 참여해 주신 시민 여러분 모두의 다양한 경험과 아이디어, 연구결과가 기탄없이 공유되고,

여성친화도시의 지속적인 확대와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한 유용한 의견과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이 풍성하게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거듭, 제11차 여성친화도시 포럼을 축하드리며, 여러분 모두 강릉에서 유익하고 뜻 깊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6월 3일
강릉시장 **최명희**

축 사



제11차 여성친화도시 포럼

여성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릉시의회 의장 이용기입니다.

여성친화도시 강릉에서 『제11차 여성친화도시 국제포럼』을 개최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포럼을 위해 강릉을 찾아주신 전국 각 지역의 여성리더들 여러분을 21만 강릉시민과 함께 열렬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최명희 시장님과 이명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여성인, 신사업당과 허난설헌의 얼이 살아 숨쉬고 있는 이곳 강릉은, 그 어느 지역보다 여성들의 다양하고 활발한 활동이 이어지면서 지역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다가오는 제96회 전국체육대회와 2018 동계올림픽에서도 우리 지역 여성 여러분들께서 성공개최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적 분위기 속에 실질적인 여성친화 노력들이 어우러져 왔기에 2010년 강릉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되었고, 지난 5년동안 여성친화도시로 변화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는 섬세하고 포용력을 갖춘 여성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요구하고 있고, 우리 여성들은 이에 부응하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반세기를 맞이하여 여성의 역할과 비중이 크게 늘어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정책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포럼을 통해 지역별·도시별 여성정책과 사례를 공유하고 토론하면서 여성들의 권익신장과 안전을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는 양성평등 도시 강릉건설을 앞당김으로써, 여성친화도시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포럼이 여성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다시금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 바라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6월 3일
강릉시의회 의장 이 용 기

Program



제11차 여성친화도시 포럼

● 일 시 : 2015년 6월 3일(수) 14:00~17:00

● 장 소 : 강릉시청 2층 대회의실

시간		내용
13:40~14:00	식 전 행 사	꽃송아리 가족 오케스트라 공연
14:00~14:05	개 회	국민의례
14:05~14:10	개 회 사	이명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14:10~14:15	환 영 사	최명희 강릉시장
14:15~14:20	축 사	이용기 강릉시의회 의장
14:20~14:30	휴 식	장내 정리
14:30~15:30	주 제 발 표	<p>주제 1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역할과 발전방안 (최유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p> <p>사례 1 지역이슈 발굴 - 강릉시 시민참여단 활동 (이상연, 솔향강릉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위원장)</p> <p>사례 2 주민 참여와 역량 강화 - 시흥시 안전지도 사업 (박상희, 시흥시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회)</p>
15:30~15:40	휴 식	장내 정리
15:40~16:50	토 론 및 질 의 응 답	<p>- 좌장 : 박혜경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연구개발부장)</p> <p>박경자 (강릉시의회 의원)</p> <p>박경란 (강릉시 여성친화도시 협의체,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강릉지회 사무국장)</p> <p>이남희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p> <p>김옥란 (강릉시 여성가족과장)</p>
16:50~17:00	폐 회	폐회

Contents



제11차 여성친화도시 포럼

주제 1

-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역할과 발전방안 1
최유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사례 1

- 지역이슈 발굴 - 강릉시 시민참여단 활동 17
(모두가 행복한 동행만들기 '여성친화도시 솔향강릉 시민참여단')
이상연 (솔향강릉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위원장)

사례 2

- 주민 참여와 역량 강화 - 시흥시 안전지도 사업 23
박상희 (시흥시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

토론문

- 박경자 (강릉시의회 의원) 31
- 박경란 (강릉시 여성친화도시 협의체,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강릉지회 사무국장) 35
- 이남희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 37
- 김옥란 (강릉시 여성가족과장) 39

주제 1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역할과 발전방안

■ 최유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 여성친화도시에서 시민참여단

여성친화도시가 시민의 삶의 다양성을 인정하라는 요구인 만큼 시민참여단은 서로 다른 사회경제적·문화적 상황에 놓여있는 다양한 계층의 여성들을 실행 그룹으로 조직하는 매개체이자, 지역 환경과 공공 서비스 등에 대한 요구와 개입을 확산시키고 지역 여성 임파워링 활동을 지원하는 수단이다.

하지만, 시민들이 각자의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단순히 참여 자체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공식적인 의사결정과정은 배제되어 왔던 여성행위자들을 참석은 시키되 사회적으로 만연되어 있는 젠더화된 선택을 완화시키는 각종 조치를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여성은 사적인 영역에 속해 있다’는 성 역할로 인하여 광범위한 참여가 배제되어 왔다면, 기존 공식적 제도 영역에 포함되지 못했던 여성의 자원을 어떻게 교환 가치가 있는 자원으로 격상시키고 인식하게 할 것인가의 문제 또한 해결되어야 한다.

시민참여단이 행정, 전문가와 파트너십을 이뤄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능동적인 시민으로 활동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다양한 활동이 지원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는 거주하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일에 대해서 공론을 만들고 다양한 사회적 여건에 처한 주민들과 함께 시민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보가 지원되고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사회 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일에 참여하는데 시간적·공간적·사회적 장애가 없도록 지원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개별 여성들이 지역사회의 집합적 또는 사회적 필요를 고려하고 지역사회 발전 방법을 둘러싼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성친화도시 파트너로 역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반적으로 정책과정의 여성 참여는 주로 전문가 집단을 목표 집단으로 해 왔지만, 여성친화도시에서는 지역 여성들의 다양한 일상의 목소리를 발굴하고 의사결정과정에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역 여성들이 도시 운영 주체로서 정체성을 갖는 것은 여성의 임파워링에 중요한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과정에서 여성 참여 확대에서 주요한 장애로 지적되어 온 문제가 해당 분야 여성 전문가의 부재라는 점에서, 시민참여단이 지역사회 사업에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안목과 사업 추진 능력을 키우는 것은 여성 참여 확대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행정, 전문가와 파트너십 역량을 갖춘 능동적인 시민의 활동은 다양한 주체들을 정책과정에 참여시킴으로써 사회 전반의 성 평등을 이룰 수 있는 지역사회 역량 또한 배가시킬 수 있다.

2.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현황

시민참여단은 지역 여성 현황 또는 요구를 찾아내고 사업에 반영하기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프로젝트에서 새롭게 기획된 사업이다. 지역사회, 특히 지역 근린은 정보, 지역 문화, 지역에 대한 지식의 교환의 장이자 개인화, 소외, 고립 등을 포함한 현대 사회의 수많은 과제들을 중재하고 완충하는 지대가 된다. 지역에서의 삶의 문제에 대한 인식과 개선방안은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여성 시민의 경험과 창조적 에너지로부터 가장 잘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여성의 시민참여단 활동은 적극적으로 만들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 공공 공간의 비공식성과 친근함은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자원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장이될 뿐 아니라, 공공 생활의 공식화된 채널과 구조를 통해 지역 거버넌스 참여 기반을 마련 할 수 있게 한다. 동시에 정책 전반을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의 요구를 수렴하고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여성 그룹의 참여 기회를 촉진하고 지역의 다양한 여성들이 연계될 수 있어야 한다.

2014년 12월 기준으로 37개 여성친화도시에서 시민참여단이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그 숫자는 2,000명이 넘는다. 도시별로 시민참여단은 평균 60여명 수준이지만, 작게는 20명에서 많게는 150여명에 이르기까지 규모에 있어서 지역별 편차는 크다. 시민참여단에서 활동하는 참여자는 전체적으로 40.6%가 주부이며 21.5%가 여성·시민 단체, 활동가, 그리고 18.8%가 각종 부녀회에 소속되어 있는 마을 조직 구성원이다. 반면 자영업 종사자는 7.0%, 일반회사원은 3.0%으로 현재까지는 주로 마을을 단위로 활동하는 여성들이 절대적으로 많이 참여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10-20대가 8.6%, 30-40대가 38.7%, 50대 이상이 52.7%이다. 물론 시민참여단 구성 비율 또한 지역별 편차가 크지만 전반적으로 시민참여단 활동은 주로 50대 이상 주부들이 가장 활발한 참여자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 시민참여단 구성

(단위: 개, 명, %)

	구성 (지자체)	계	자영	회사	주부	학생	단체	마을	기타
전체	34	2,113	7.0	3.0	40.6	3.8	21.5	18.8	5.3
4년차 도시	5	540	9.2	5.5	35.6	6.6	14.4	28.2	0.6
3년차 도시	15	834	6.4	1.6	36.6	0.3	25.8	19.0	10.2
2년차 도시	8	454	7.0	4.2	52.5	0.1	11.1	13.9	11.2
1년차 도시	6	285	8.2	4.4	41.4	2.3	33.5	4.2	6.1

자료> 최유진 외(2014), 『2014년 여성친화도시 이행점검 및 사업모델 개발 연구』

이와 같은 구성은 다음의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제기하는데, 첫째는 활동의 중심축인 주부들에게 마을이나 여성친화도시 사업 현장에 대한 모니터링 등의 수단을 통해서 지역사회와 관련된 정보와 사업추진방법 등에 대한 폭넓은 경험을 쌓게 하고 최종적으로는 지역사회의사결정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과제를 제기한다. 두 번째는 아직까지 시민참여단이 지역사회 다양한 여건에 처한 여성들의 경험이 교류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점에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여성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확장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다양한 계층의 여성들은 서로 다른 사회경제적·문화적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다양한 계층의 여성들이 실행 그룹에 포함되어야 대표성의 수준이 증진될 수 있다.

시민참여단은 이와 같은 구성상의 과제 뿐만 아니라, 시민참여단 활동이 지역사회 의사결정자이자 기획자로서의 여성 역할을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활동을 다각화시켜야 한다는 과제 또한 안고 있다. 몇 개의 여성친화도시를 제외하고 시민참여단 활동성과는 아직까지는 초보적인 수준이다¹⁾.

현장 모니터링에 참여한 실적은 다수 있지만, 때로는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가 민원불편사항을 건의하는 정도로 축소되는 경우도 있고, 시정 사업에 대한 단순 홍보요원 활동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현장 모니터링이나 마을 모니터링 이후 행정과 지역사회 개선에 대한 의견을 교류한 사례가 다소 있으나 각종 활동 참여를 통하여 지역사회를 시민의 눈으로 기획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활동 지원이 이루어진 경우는 드물다. 물론, 시민참여단이 모니터링 사업뿐만 아니라 직접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한 실적 또한 만들어지고 있고²⁾, 행정의 지원 활동을 통해 시민참여단 활동을 추진한 지역 여성이 정책의사결정과정 참여한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일반적인 시민참여단의 활동은 도시 기반시설의 편의도모를 위한 모니터링 활동 이외로 확산되고 있는 형편은 아니다.

1) 모니터링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를 개선한 사례로 강릉시와 장흥군은 공공시설 중심의 모니터링을 통해서 여성쉼터 운영 등을 제안하였고 양산시와 연제구는 마을 중심의 모니터링을 통해서 유휴 공간을 발견하고 이를 여성의 학습 공간으로 리모델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시민참여단 활동을 기존 지역 조직이나 유관 활동을 추진하는 단체를 활용하여 추진하는 방법도 있다. 포항시는 여성발전기금 사업으로 포항여성회와 여성친화도시 모니터링을 위한 교육과 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연제구는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연제랑’뿐만 아니라 평생학습도시 사업과 연계하여 주부들로 구성된 행복학습파트너가 지역 내에서 유휴 공간을 찾아서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2) 시흥시와 수성구 시민참여단은 아동안전지도 제작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포항시 시민참여단은 온라인 활동 공간을 만들고 참여하고 있다. 대구 달서구 시민참여단은 체계적인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다. 매월 월례회의와 현장 활동을 통하여 다양한 제안서를 각부서로 통보, 각 부서별 사업계획, 예산에 반영하고 있다. 시민참여단 월례회의에서는 여성친화심화교육이나 성공한 지역현장 우수사례 견학도 추진되고 있으며 분과별로 모니터링 사업을 차별화하여 안전 예술분과는 달서 북소리축제, 달서 웃는 얼굴 큰 잔치 등 문화 축제 모니터링, 돌봄 교육 분과는 지역아동센터 모니터링 등을 추진하고 있다.

〈표 2〉 시민참여단 정책의사결정과정 참여

	참여	활동 내용	참여자
시흥시	위원회	해남이다리 수변생태 관광사업에 시민참여단 회장단 MP(총괄계획가) 회의 참석	2명
	시민지방재정평가단	시민참여단 회장 평가위원으로 참여	1명
연제구	여성정책위원회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연제랑' 회장 여성정책위원회 위원 신규위촉(2013.10.23)	1명

자료> 최유진 외(2014), 『2014년 여성친화도시 이행점검 및 사업모델 개발 연구』

3.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역할

시민참여단 역할에 대한 정의나 지원체계에 대한 인식은 도시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참여단 활동의 최소한의 전제는 풀뿌리 지역 주민의 참여가 모니터링 활동 등 단순한 참여 그 이상으로 의사결정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자체 동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활동이 조직화될 필요가 있다.

여성친화도시 사업 주체들에게 현재 여성친화 시민참여단의 주된 역할을 질문한 결과 “의제발굴부터 사업추진, 사업평가의 전 과정에서 행정과 공동 협업(29.9%)”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지역사회 생활환경에 대한 모니터링단 역할(24.6%)”, “시민 역량 개발을 위한 다양한 교육 등 프로그램 참여 역할(23.5%)”, “지역 여성의 요구를 행정에 건의하는 가교 역할(22.1%)”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3〉 시민참여단 주된 역할

(단위: 명, %)

	사례수	다양한 교육 등 프로그램 참여 역할	여성의 요구를 행정에 건의	생활환경에 대한 모니터링 역할	사업 전 과정 행정과 협업	계
전체	814	23.5	22.1	24.6	29.9	100.0
소속	주무부서	88	22.7	19.3	26.1	100.0
	사업부서	415	27.0	20.7	23.1	100.0
	시민참여단	201	18.9	25.9	29.9	100.0
	조성협의체	110	19.1	22.7	19.1	100.0

자료> 최유진 외(2014), 『여성친화도시 조성단계별 추진체계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물론, 전반적으로 각각의 문항에 대한 응답비율이 비슷한 수준으로 보아 현재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이 지역사회 생활환경을 모니터링하고, 지역 여성의 요구를 행정과 연계하며

궁극적으로는 의제발굴부터 사업추진과 평가의 전 과정을 행정과 공동 협업해야 한다는 점에 전반적으로 동의하고 있거나 또는 다양한 역할 및 활동이 모두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시민참여단의 활동과 관련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활동을 하는 여러 주체들간에 다소 견해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와 주무부서, 사업부서 공무원은 “의제발굴부터 사업추진, 사업평가의 전 과정에서 행정과 공동 협업(각각 39.1%, 31.8%, 29.2%)”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반면, 정작 시민참여단 구성원들은 “지역사회 생활환경에 대한 모니터링단 역할(29.9%)”을 주된 역할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다. 물론,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아니지만, 시민 참여단의 주요 활동이 모니터링이나 행정에 대한 건의에 그칠 경우 시민참여단을 행정 활동을 보조하는 수동적인 역할로 제한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시민참여단 구성원들은 지역사회 생활환경을 모니터링하고, 지역 여성의 요구를 행정과 연계하며 궁극적으로는 의제발굴부터 사업추진과 평가의 전 과정을 행정과 공동 협업해야 한다는 시민참여 활동과 관련하여 적절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는 시민참여의 필요성에 대한 기대와 요구(8.94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다(6.32점)는 점 또한 적극적으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표 4〉 시민참여단 적절한 역할 수행

(단위: 명, 점)

		적절 역할 수행		시민참여 필요성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전체		201	6.32	201	8.94
지정년도	2013	66	6.79	66	9.17
	2011	34	7.26	34	8.97
	2010	89	5.27	89	8.61
	2009	12	8.83	12	10.0

자료> 최유진 외(2014), 『여성친화도시 조성단계별 추진체계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시민참여단 구성원들은 활동 참여 과정에서 겪은 가장 큰 어려움으로 “시민의 낮은 참여율(40.3%)”과 “시민참여단 운영을 위한 예산, 정보공유 등의 행정적 지원 부족(32.3%)”을 지적하고 있다. 행정 역시 시민참여단 운영 과정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시민의 낮은 참여율(44.1%)”을 제기하고 있다³⁾는 점에서 시민참여단에 대한 역할에 대한 기대에 비추어 현실에서의 활동은 간극이 크다고 볼 수 있다.

3) 특히 시민의 참여율이 낮은 점에 대한 문제의식은 주무부서 공무원들이 가장 크게 인식하고 있다(48.9%).

〈표 5〉 시민참여단 활동 중 어려움

(단위: 명, %)

	사례수	낮은 참여율	시민내부 역량차이	운영 프로그램 부재	행정적 지원 부족	기타	계
행정	503	44.1	20.3	15.1	16.5	4.0	100.0
시민참여단	201	40.3	8.5	16.4	32.3	2.5	100.0

주: $\chi^2=28.822^{**}(p=0.004)$

자료> 최유진 외(2014), 『여성친화도시 조성단계별 추진체계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 밖에 시민참여단은 “행정적 지원 부족”을 활동 어려움으로 인식하고 있는 데에 반해, 행정 부서에서는 “시민참여단 내부 시민간의 역량 차이”를 어려움으로 인식하고 있어 시민참여단 운영의 어려움을 서로에게 귀속시키는 경향이 크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물론 지금까지의 관행 상 시민참여단 조직화는 행정이 주도적으로 했다는 점에서 시민참여단 활동에 대한 명확한 목표와 체계적인 활동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참여단은 활동은 교육, 모니터링, 사업 참여뿐만 아니라 시민참여단이 자체 회의 등을 추진하면서 사업이나 지역사회를 기획할 수 있도록 스스로 자가 발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또한 시민참여단 활동에서 활동 주체들에게 강하게 인식되고 개발될 필요도 있다.

특히, 시민참여단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여성친화도시 개념 및 조성 방법 등에 관한 강의’와 같이 일방적이고 수동적인 강의보다는 “지역사회 생활개선 모니터링 현장 실습과 결과에 대한 피드백(40.3%)”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매번의 시민참여단 활동에 대해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시민참여단 구성 초기에는 여성친화도시와 성인지 정책에 대한 이해 교육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시민참여단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시민참여단 스스로의 활동에 대한 피드백과 다각적인 참여 활동, 그리고 시민참여단의 참여 활동이 어떻게 의사결정과정에 반영되고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공유하고 발전시키는 활동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4.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활성화를 위한 제언

① 활동 체계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은 분야별 전문가, 지역 활동가, 지역 거주 여성 등의 참여에 대해 강조해왔다. 시민 참여단의 제도화는 일종의 표준화된 추진체계의 구성 요소로 명시되고

있다. 시민참여단을 공식적인 추진기구로 만들어서 지역사회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를 촉진시키는 수단으로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여성친화도시의 문제제기는 이미 젠더 관계에 의해 배제된 여성에게 자동적으로 정책 네트워크에 참여할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상황인식에 기반한 것이다.

사실 시민참여가 더 이상 낮설지 않은 현행의 정책 관행은 각종 마을 만들기 사업 등을 통하여 지역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상설 위원회 혹은 협력기구 설치 등을 이미 광범위하게 추진하고 있고 주민참여예산제나 공식적인 행정 내 시민참여 모니터링 기구들을 이미 설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개발, 정주환경개선 등의 협의 사항에 여성의 안전이나 돌봄 여건 개선과 같은 현안이 포함되는 경우는 드물고, 돌봄에 대한 공공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기는 하지만 잔여적 범주로 치부되는 경향도 여전하다. 여성들이 지역사회 ‘참여’의 기회를 동등하게 얻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회의 제한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참여를 통해서 경험하지 못함으로써 사고와 행위 또한 제약하는 효과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참여단은 서로 다른 사회경제적·문화적 상황에 놓여있는 다양한 계층의 여성들을 여성친화도시 실행 그룹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 사회 생활환경과 공공 서비스에 대한 여성의 요구와 참여를 확대하자는 취지에서 고안된 여성친화도시의 주요한 사업 추진 기구이다.

하지만, 운영되고 있는 시민참여단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된 조례 규정을 만든 도시는 12개 도시에 불과하고, 지역사회 생활 불편 및 개선사항 발굴하여 개선과제를 제시한다는 소극적 역할 규정에서부터 시정 사업의 성인지적 개선 의견 제안과 마을단위사업을 추진한다는 적극적 역할 규정까지 다양하다.

〈표 6〉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지자체	시민참여단/서포터즈/모니터단 조례 규정
대구 중구(4년차)	중구 여성구정평가단(운영 조례 제정, 2011) ⁴⁾
달서구(4년차)	모니터단 설치·운영(2013.11.1.신설) - 의견제시, 주민의견수렴, 성별 불균형요소 발굴, 실비지원
수원시(4년차)	· 모니터단 - 도시계획, 교통, 도로, 성인지 등 분야별 전문가 및 시민(50명 이하) - 불편 및 개선사항 발굴하여 개선과제 제시
시흥시(4년차)	· 성평등서포터즈 - 생활불편건의, 성인지적 개선, 마을단위사업추진, 예산지원
안양시(3년차)	· 서포터즈-불편 건의, 의견제안, 예산 및 포상제도

4) 대구 중구의 경우는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의 취지와는 다소 상이하지만 구정을 모니터링하는 여성 구정평가단 운영 조례를 독자적으로 제정하였다.

지자체	시민참여단/서포터즈/모니터단 조례 규정
아산시(3년차)	· 서포터즈(2013.9.25신설) - 공개모집, 필요시 위촉 - 모니터링과 개선의견, 정책방향 제안 및 홍보 - 재정지원, 표창
서대문구(2년차)	서포터즈 설치·운영 및 예산지원
수성구(2년차)	서포터즈 설치·운영(2013.4.10.신설)- 행정·재정적 지원 및 포상
부산 남구(1년차)	서포터즈 구성·설치-활동지원 및 유공자 표창 조항
용인시(1년차)	모니터단 - 도시계획, 교통, 도로, 성인지 등 분야별 전문가 및 시민(50명 이하) - 성인지 개선, 사업 추진
구미시(1년차)	· 모니터단 - 도시계획·교통·도로·녹지 등 전문가 및 시민(50명내외) - 생활불편건의, 성인지적 개선, 사업추진
경산시(1년차)	· 시민참여단-간담회 소집 및 행정·재정 지원,포상

자료: 최유진 외(2014), 『2014년 여성친화도시 이행점검 및 사업모델 개발 연구』, 여성가족부에서 재구성

하지만 각각의 조례가 정의하고 있는 모니터단과 시민참여단의 구성 및 역할 규정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데, 수원시와 용인시 및 구미시는 모니터단을 시민과 전문가를 포함한 50명 내외로 구성하여 불편 사항을 건의하거나 개선과제를 제안할 뿐 아니라 사업도 추진하는 것으로 그 역할을 명시하고 있다. 시흥시는 서포터즈를 구성·운영하고 있는데, 생활불편건의 및 성인지적 개선, 마을단위사업추진이라는 유사한 역할이 명시되어 있다. 아산시의 서포터즈 또한 개선의견, 정책방향 제안에 대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례 규정은 제정 당시부터 만들어진 것도 있고 조례를 한 차례 개정하여 모니터단 혹은 서포터즈 설치 운영 규정을 신설한 경우도 있다.

어떤 형태를 취하든지 간에, 시민참여단 활동이 의사결정력을 보유한 젠더 거버넌스 구성원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민참여단 활동에 적극적인 역할을 부여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물론, 조례에 관련 조항이 있다는 것이 곧 활발한 시민참여를 결과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사회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 조례에 시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 규정에는 불편 사항을 건의하거나 개선과제를 제안할 뿐 아니라 사업도 추진하는 것으로 그 역할을 명시하고, 지역공동체활동가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학습기회 지속제공과 ‘동원’이나 ‘봉사’의 차원이 아니라 참여를 통한 성장임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표 7〉 조례 개선(안)

구분	조항	표준 조례(안)*	개선(안)
시민 참여단	신규		- 구성 : 다양한 지역여성 참여 - 기능 : 사업 발굴, 제안, 추진

* 표준 조례(안)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매뉴얼에서 제시된 조례안

더불어, 시민참여단의 참여와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재정지원이나 포상제도 등에 관한 규정을 명시한 지자체도 다수(달서구, 시흥시, 안양시, 아산시, 서대문구, 수성구, 경산시) 있다. 이는 시민참여단을 단순히 ‘동원’이나 ‘봉사’의 차원으로 인식하던 종래의 관행에서 벗어나 사업 파트너로 적극 육성하고자 하는 적극적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물론, 활동에 대한 제도적 인정 조치로서 포상제도를 조례에 규정하고 있다고 현실에 모두 반영된 것은 아니며, 조례 규정이 없더라도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활동에 대한 지역사회의 독려를 필요한 조치로 보여진다.

〈표 8〉 포상제도 운영 현황

대상	지자체	내용	시행
시민, 공무원	마포구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 관련 표창 : 민간2명, 공무원1명 (여성주간 기념행사 유공자 추천)	2014.7.4
	달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우수공무원, 기업대표, 모니터단, 후원단체 표창(여성주간 기념행사 유공자 추천)	2014.7월
	시흥시	여성친화도시 유공자 표창(공무원 2명, 협의체 4명)	2013.12.4
시민	의정부	시민 서포터즈 활동 포상(5명)	2014.12
	광명시	2013.여성친화도시 조성 유공자 표창(서포터즈)	2014.1.23
	포항시	여성친화도시 유공 (4명)(서포터즈)	2013.12.27

자료: 최유진 외(2014), 『2014년 여성친화도시 이행점검 및 사업모델 개발 연구』, 여성가족부

더불어, 여성친화도시에서 시민참여단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제고가 필요하다. 현재 여성친화도시에서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는 위원회 성격으로부터 지역 내 다양한 여성 및 전문가들의 협의체 기능까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때로는 유명무실한 기구로 남겨져 있는 상태이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의 역할에 대하여 “일상생활의 문제와 요구 및 지역 사회의 성 평등을 달성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한다는 정의를 갖고 있는 도시도 있고, “내실 있는 추진”이라는 불명확한 단어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다소 특징적으로 사업 수립, 시행,

평가의 업무와 더불어 성 평등 정책 시행 주요업무 체크리스트 심의 및 사업추진 업무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몇 가지 예외상황은 있으나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는 “여성친화도시 정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행정부서 및 기관, 전문가(여성정책 전문가, 공간정책 전문가), 여성단체, 시민단체 활동가 등”이 참여한다는 것 이외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에 대한 명확한 합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여성친화도시에서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의 구성과 활동은 위원회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는 성인지적 사업기획과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역사회 내 다양한 분야의 의견 수렴과 인적, 물적 자원의 교류협력을 활성화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행정이 시민 의견을 수용할 수 있게 하고 총체적인 여성 삶을 지원할 수 있는 연계 활동을 개발하고, 지역 여성의 임파워링을 지원하는 역할을 추진하는 중간지원 기구로서의 역할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에 지역 내 다양한 여성 및 전문가들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은 이미 알려진 주지의 사실이다. 지역사회와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 여성 의원, 공공 기관, 여성 기업인, 여성 단체 및 마을 조직과 전문가 그룹들이 함께 모이는 이유는 분야별 여성 현황을 공유하고 지역 현실에 적합한 사업을 구성하고 추진을 지원한다는 데에 우선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심의 또는 건의나 자문보다는 지역여성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지식을 개발하고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에 대해 협의하고 기획하는 것이 본연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시민참여단의 지속적인 성장 또한 지역 사회 현안이라면 이 또한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 내에서 기획·추진 지원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을 필요가 있다. 시민참여단의 지속적인 성장 방안은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과 연계되면서 시민참여단 구성원 및 지역 여성들이 지역사회 전체에서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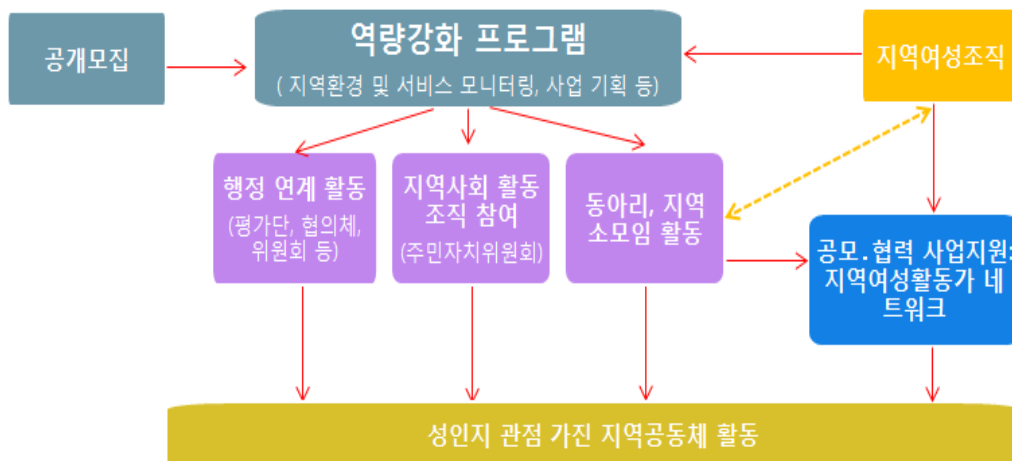
② 지역 특성에 적합한 시민참여단 구성 필요

여성친화도시에서 시민참여단은 공개 모집을 통해서 다양한 지역주민을 참여단으로 구성하거나 기존에 민관협력 경험이 있는 여성단체 회원 또는 행정과 연결되어 있는 여성들을 중심 -통장, 새마을 부녀회 등 각종 지역조직 -으로 구성되는 경향이 있다. 시민참여단의 구성은 지역 여성을 지역사회에서 가시적인 존재로 만들고 공식적인 의사결정과정에 참여시키고자 하는 수단적 활동이라는 점에서 시민참여단의 존재 여부보다는 어떻게 활동하고 발전시키느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시민참여단에 대한 공개모집 방법은 그간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과

기회를 얻지 못했던 지역 여성에게 참여 통로를 개방한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공개모집이라는 것이 단지 홍보 수단을 통해서 누구에게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이외에도 지역사회 활동에 대한 참여의 의의나 방법 등을 공유하고 활동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것과 병행하는 것을 지역 여성들에게 내거 살고 있는 동네와 이웃에 대한 관심을 키우고 참여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 활용될 필요가 있다. 특히,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시민교육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추진되고 있는 바, 일방적인 홍보성 교육보다는 참여 방법과 활동을 제안하고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을 토론하는 교육으로 추진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형태로든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모임·동아리·마을 조직 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들의 활동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시민참여단을 조직하는 방법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각종 소모임들이 활성화되어 있다. 작은 모임들에 참여한 여성들은 이미 사회적인 활동에 대한 참여 의사가 있고 각종 활동들을 추진해 본 경험이 있다. 지역의 특정 분야에서 자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모임, 동아리, 단체들 중 여성친화도시 목적에 맞는 사업계획을 가진 여성 조직을 발굴하여 지역사회 사업 파트너인 시민참여단으로 활동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즉, 지역사회 내 네트워크 확장과 개별 조직의 관심사 뿐만 아니라 이웃과 지역사회 현안에 대해서도 민감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업 역량을 키우는 활동 또한 지역공동체에서 여성 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 개별 여성친화도시는 여성조직 현황에 따라서 서로 다른 정책 환경에 적합한 시민참여단 구성방식을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음

[그림 1] 다양한 시민참여단 구성 방법

때로는 공개모집을 통한 지역사회 여성을 조직하는 것과 이미 활동하고 있는 지역여성 조직들을 네트워크화 하여 시민참여단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시민참여단의 활동 범위를 확장시키는 방법으로 고려될 수 있다. 즉, 시민참여단은 구성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지역 여성들의 다양한 일상의 목소리를 발굴하고 지역 여성들이 도시 운영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간과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③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 필요

여성친화도시 시민 참여단을 친화도시 사업 추진의 파트너로 만들기 위해서는 참여 여성들이 각종 지역 사업 또는 프로젝트들이 모든 시민들의 삶의 질을 고양시킬 수 있도록 균형있게 기획되고 추진되는지를 스스로 질문하고 개선 방안을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참여 시민들은 스스로 일과 돌봄을 지역 공동체가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하고 여성의 공적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지역사회에서 여성과 남성이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삶에서 동등하게 참여하는 것이 안정된 삶의 여건을 만드는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첫째, 시민참여단의 교육 방향은 워크숍, 세미나, 지역 조사 등을 통해서 자신의 에너지가 지역 또는 다른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경험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역을 위해 일할 의사를 고양하는 방향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시민들은 실천 활동을 통해 개인과 집단이 함께 성장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지역사회 성원들이 삶의 주체로 변화되는 것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사업을 기획할 수 없다면, 행정부 내에서 또는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를 통해서 발굴된 추진 과제를 검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활동부터 시작할 수도 있다. 물론, 지금까지 지역사회 내에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이 다방면으로 이루어졌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여성친화도시 사업에서 지역 여성의 사회 참여는 개별화된 자원 활동에 그쳐서는 안 되며 지역사회의 발전 방향을 함께 생각하고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아이디어를 행정과 공유하면서 스스로도 지역 만들기의 주체로 인식되고 사회구성원으로 부터도 지역사회 공헌자로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 점이 지역에서 활동해왔던 자원 활동과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의 활동 결과의 차이이다.

둘째, 지역 시민의 가장 큰 강점은 지역사회에 대한 가장 많은 정보와 애정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개인의 경험이나 여건에 기반한 정보는 다양한 연령, 가족 여건, 직업, 신체적 여건 등을 인지한 사회적인 정보로 전환될 수 있어야 한다. 시민참여단에서 모니터링을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개인의 관심을 사회적인 것으로 확장시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최초의 모니터링 분야는 직접 시설이나 공간,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이용해보고 작성

하는 관찰기술지 작성 등의 활동을 통해서 도로 및 교통시설(주차장, 정류장 등), 주거환경, 휴식 공간, 문화시설, 생활체육시설 등 지역사회 제반 환경 등을 점검하는 것일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다양한 여건의 시민환경을 이해했다면 여성의 안전, 돌봄, 경제활동, 복지 등과 관련된 주요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대한 점검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여성친화도시에서 여성 역량 강화는 취약 계층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강화한다는 의미 이상이다. 지역사회 일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가능한 시민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적절한 시간과 자원이 여성들에게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여건이 갖추어져야 만이 생활속에서 얻은 지식, 경험과 창조성을 자유롭게 지역사회를 위해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요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과 개선은 지역 여성의 다양한 사회활동의 기반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여성 여성인적자원개발은 교육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교육의 결과가 여성들의 지역사회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될 필요가 있다. 특히, 각종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활권에서 균등하게 주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지역 여성들의 자발적인 모임과 동아리 활동을 통해 지속적인 사회관계를 맺고 지역사회 활동을 스스로 기획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모임 간, 단체 간 상호 협조 및 네트워크 조성 등도 포함되며, 각종 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설과 활동에 접근하는 데에 성별·연령별·신체적 차이가 장애가 되지 않도록 개선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모니터링 이후에는 지역 여성 생활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또는 시민회의(town meeting), 청책(廳策) 및 간담회 등을 추진하여 다양한 여성들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살면서 어려운 점, 지역에서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 소통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연계되어야만 한다. 그러할 때만, 시민참여단의 활동은 민원 제기로부터 지역사회 공론을 만드는 과정으로 전환될 수 있고 지역에 필요한 전략적인 성 평등사업 발굴을 위한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셋째, 장기적으로는 시민참여단이 소모임, 동아리 등을 구성하고 마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과 공식적인 의사결정과정 참여를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시민참여단 활동이 지속된다는 전제하에서, 역량을 갖춘 다양한 시민참여단 구성원들이 활동 전망은 지역사회 전체에서 찾아질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여성친화도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거주지에서 생활하는데 어려움으로 지역사회 참여기회의 부족이나 이웃과의 소통 부족 등을 지적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꽤 높은 편이나, 현실적으로는 부녀회나 입주자 대표회의 등과 같은 마을 내 주민모임에서만 소수 여성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마을에서 여성이 고립되지 않고 일과 돌봄 및 사회적 관계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고, 거주하는 곳의 일과 돌봄 여건, 주택, 교통,

안전, 환경 등의 일상 생활 이슈를 공식적인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함으로써 해결할 수도 있다. 특히 모든 여성친화도시에서 마을 모임에 대한 참여 의사가 높지만, 마을 모임에 대한 참여 의사만큼 행정연계 활동에 대한 참여의향은 높지 않다는 현황 속에서 후자에 대한 참여를 지원하고 활성화시키는 것은 중요하다. 모든 주민들의 지식, 자원, 기술이 투입되고, 공공의 사결정에 반영될 때, 도시 업무는 최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양애경·최유진·전기택·이명주·문희영. 2011. 『여성친화지정도시 이행점검 연구 및 컨설팅』. 여성가족부
- 최유진·유희정·문희영·허태욱·김양희·손문금·이은아·장미현. 2014. 『2014년 여성친화도시 이행점검 및 사업모델 개발 연구』. 여성가족부
- 최유진·문희영·김양희. 2014. 『여성친화도시 조성단계별 추진체계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

사례 1

지역이슈 발굴 - 강릉시 시민참여단 활동 (모두가 행복한 동행만들기 ‘여성친화도시 솔향강릉 시민참여단’)

■ 이상연 (솔향강릉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위원장)



I. 참여단 구성 배경

강릉시는 2010년 11월 17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아 2011년 5월 25일 ‘여성친화도시 솔향강릉 시민참여단(이하 솔향강릉 시민참여단)’ 22명을 위촉하였고, 2015년 1월 26일 정식으로 단체등록을 하였다.

2015년 현재 31명의 시민참여단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2011년부터 오랜시간 함께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열정 가득한 멤버들로, 내 고장 강릉을 누구보다 아끼고 ‘행복한 동행만들기 여성친화도시 강릉’의 실현을 위해 굵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발로 뛰는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II. 지난 4년간 활동과 성과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역차원의 공감대 형성과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등을 위하여 구성된 시민참여단은 지역사회, 아동, 여성분야 등 시정발전을 위하여 활동하는 시민들로 생활 속 불편사항 관련 모니터를 통해 개선의견을 제시하고, 거주 지역 내 여성친화도시 주민 홍보 전개, 마을안전지도 제작, 허균·허난설헌시비공원 관리, 매월 자체 월례회의를 통해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책 제안 등으로 적극적으로 시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회원들은 자체적으로 임원을 구성하여 각자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여성친화도시 솔향강릉 시민참여단’의 주요활동 중 첫 번째 활동으로는 ‘생활 속 개선사항 모니터링’이 있다. 시민참여단의 초기 모니터링은 『다같이 동네방네 한 바퀴』 프로젝트로 현장 체험 중심이었다.

관광지 공중화장실, 버스승강장 등 공공편의시설을 직접 방문·체험하고 모니터링 후 자체 회의를 통해 개선의견을 도출하고, 시 관련부서에 전달 및 시정반영하여 강릉시가 여성친화도시로써의 시설·환경 인프라 구축을 하는데 기여하였으며, 여성친화도시 홍보 활동을 자율적으로 전개하여 여성친화도시 초기 다소 생소한 ‘여성친화’ 개념을 친숙한 개념으로 바꾸는데 일조하였다.

2015년 현재는 지난 4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성의 눈으로 강릉 바라보기(모니터링)’를 모토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주도형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의 대표적 주민자치 거버넌스로써 시민의 입장에서 환경,시설,정책 전반에 대한 현장 의견을

제시하여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활동을 주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솔향강릉 시민참여단’의 두 번째 활동은 강릉시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으로 ‘시민참여단과 함께 만드는 여성이 행복한 도시’사업이다. 공공시설 모니터링으로 얻은 경험을 활용하여 강릉에서 개최되는 크고 작은 행사·축제를 여성친화도시 지표를 활용하여 모니터링·분석하고 있다. 지역주민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지 조사를 통한 현장 모니터링 분석 결과를 관련부서에 건의·제공하여 향후 축제 및 행사 시 가정내 의사결정의 중심인 여성이 편리하고, 안전하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강릉을 찾는 관광객에게 ‘가족이 여행하기 좋은 도시, 여성친화도시 강릉’의 홍보활동도 함께 전개하고 있다.

세 번째 활동은 ‘허균·허난설헌 시비공원 관리’사업이다.

시민참여단의 모니터링 활동 중 잡초와 주변 쓰레기들로 관리가 소홀했던 허균·허난설헌 시비공원을 발견하여, 자체 회의 결과 강릉의 대표적인 역사속 여성 인물인 허난설헌의 시비공원을 자발적으로 연중 관리하여 허난설헌의 얼을 선양하는 것도 우리 참여단에게 의미있는 활동이라는 회원들의 의견으로 시작하였다.

공원 내 뿐만 아니라 주변에 방치된 쓰레기 더미를 직접 치우고, 꽃묘와 꽃나무를 심어 보기 좋은 공간을 마련하였으며, 회원들이 매월 잡초제거 및 주변 환경정화 활동을 통해 꾸준히 관리하여 난설헌의 얼을 기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네 번째 활동은 ‘우리동네 골목안전프로젝트, 마을안전지도 만들기’ 사업이다.

지역사정에 밝은 주민 스스로 지역의 안전·위험요소를 지도로 제작하여 생활공간 주변에서의 여성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살기 좋은 여성친화도시 강릉을 구현하기 위해 시작하였다.

기존 아동안전지도와 생활안전지도를 결합하여, 학교 주변에 국한 된 지역범위를 넓히고, 정부차원의 일방향 정보 제공방식을 벗어나 지역주민이 주체가 된 생활밀착형 지도를 제작하기 위해 강릉시와 시민참여단이 협력하여 함께 노력하고 있다.

또한 참여단의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안전지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시민참여단 대부분이 강릉시에서 주관한 ‘마을안전지도 제작 교육’을 받았으며 여성뿐만 아니라 교통약자도 활용할 수 있는 픽토그램을 추가하고, 구도심 지역을 우선 시범 제작하는 등 사회적 약자의 성장과 안전을 배려하는 여성친화도시의 목표에 충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Ⅲ. 활동시 어려움

솔향강릉 시민참여단으로 활동해 온 지난 4년간 성과만 있고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주 중 낮 시간을 비울 수 있는 남성회원 모집이 어려워 31명이 모두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 꽃을 실어 나르고, 꽃나무를 심기 위해 삼질을 하고, 커다란 나무와 경계석 등을 운반하는 등의 활동이 버거울 때도 있었다.

또한 모니터링 결과 즉시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 관련 부서에 제안했는데 추후 반영이라는 답변을 받았을 때는 작은 허탈감을 느낀 적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문제들은 여성정책부서와의 협력과 소통을 통해 해결해 나갔다.

시민으로만 구성된 참여단의 특성상 ‘여성친화’나 ‘민관 거버넌스’의 개념이 생소하여 여성정책부서에 제안하여 워크숍 및 간담회, 교육 등을 받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런 노력들이 솔향강릉 시민참여단 회원들의 역량강화에도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 믿는다.

Ⅳ. 앞으로 활동계획

2015년은 ‘솔향강릉 시민참여단’에게 그 어느 해 보다 바쁜 해이다.

강릉단오제 및 커피축제, 전국체전 등 15년에 계획되어 있는 9개의 지역축제 행사장에서 여성친화지표 모니터링 설문지를 들고 뛰어다니고 있을 것이다.

또한 옥천동 구도심지역 마을안전지도 제작 경험을 토대로 두 번째 지역의 마을 안전지도 제작을 위해 동네 골목 구석구석을 누비고 있을 것이다.

물론 허균·허난설헌 시비공원에도 식재한 꽃묘와 나무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물을 주고, 김도 매주고, 쓰레기도 치워야 하며, 불편사항을 찾아 동네 골목 어느 한 구석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솔향강릉 시민참여단은 앞으로도 매의 눈으로, 여성의 눈으로, 강릉을 사랑하는 시민의 눈으로, 강릉시 시정 전반에 참여하여 시정발전을 지원함과 동시에 모두가 ‘행복한 동행 만들기, 여성친화도시 강릉!’을 홍보하는데 앞장설 것이다.

사례 2

주민 참여와 역량 강화 - 시흥시 안전지도 사업

▮ 박상희 (시흥시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



“시민과 더불어 함께 만들어 가는 여성친화도시” 시흥시는 2010년 12월 9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 받았다. 2011년 “여성 친화도시 시민 자유키 카페”를 만들면서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시민 자유키 카페의 회원들이 여성 친화도시 협의체 회원과 서포터즈 활동으로 이어져 5년째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시흥시의 여성 친화도시 협의체 활동 현황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사회적 약자의 성장과 안전을 구현하기 위해 여성 친화도시 공간 조성과 돌봄, 공모 사업을 중심으로 활동해 왔다.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을 구축하여 시흥시 여성정책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였고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의 공공시설 가이드 라인 제작 시행하여 여성 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특히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노인을 위한 배려주차장의 디자인은 특허청에 출원 등록한 상태이다. 배곧 신도시를 국내최초 셉티드 인증을 획득한 계획 도시로 장애물이 없는 안전한 도시로 건설 중에 있다. 공모 사업으로는 안전한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한 관내 보육 시설 모니터링 사업을 하였고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지역 연대 사업인 초등학교 방과후 가족 품앗이 사업과 범죄예방과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한 아동 안전지도 제작사업은 3년째 진행하고 있다. 성평등기금 공원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하여 권역별 35개의 공원을 대상으로 여성친화적 관점의 설문조사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환경을 개선하였다.

여성친화 시범거리 ‘노란별길 조성사업’은 군서 초등학교 주변 안전한 통행로를 설치하고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밤길 귀가를 위한 것이다. 노란별 음악회, 노란별 나눔터의 소셜 미디어 교육 등 지역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사업 진행과정에서 시민강사의 역할이 매우 컸으며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도 활발하게 진행 되었다. 이처럼 다양한 모니터링 사업은 여성 친화도시 협의체 활동의 홍보로 이어서 회원 및 서포터즈의 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타 지역에서 많은 방문단이 찾고 있다. 그러나 노란별길은 지속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나타나고 있다. 높은 비율의 외국인 거주지역으로 지역주민의 인식이 부족하여 다문화 센터와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결과로 2013년 여성친화도시 국무총리상과 2014년 성별영향분석평가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다.

시민강사 양성 및 활성화

여성친화도시 시민강사 양성은 도시·지역 정책에 대한 여성들의 욕구와 관심을 시 정책에 반영하고 시민 참여를 활성화시키는데 필수적이다.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지역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 출신의 시민강사가 행정과 시민사이에 징검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 시민의 일시적인 자원활동 보다는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제시를 할 수 있는 지역에서 성장한 시민강사의 활동은 지역 시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 있으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에 기여함은 물론 진정한 시민이 주도하는 여성친화도시 협의체가 조성 될 수 있다.

2010년 시흥시는 시민의 힘으로 만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1000여명을 대상으로 지역 공동체 의식교육을 추진하는 것을 시작으로 시민교육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2011년부터 10주간의 지역 리더 전문가 양성과정을 통해 시민 강사를 배출하였다.

2012 성평등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시민들의 시정 참여를 확대 하였고 2013년 여성친화도시 협의체 회원들을 전문 시민 강사로 육성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 강사를 활용, 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희망 강좌 의견서를 받아 양성평등 및 여성친화도시 활성화를 위한 집중 교육을 실시하였다.

심화교육과 워크숍등을 통해 시민들의 역량 강화가 나타나 시민 여론 수렴을 위한 시민 공모, 토론회, 간담회 등을 실시하였다. 지역 주민 대상 여성친화도시 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지역 모니터링, 안전지도 제작 등을 추진하여 일자리 창출과 연계 하였다. 시민강사들은 각 동 별로 통장협의회에 참석하여 여성친화도시를 홍보하였다. 또한 일 년 과정의 양성평등 교육진흥원 전문강사과정 참여와 매년 시흥시 여성 리더 아카데미에 5주간 참여하여 시민의식을 제고하고 지역발전 주체로서의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 발전과 젠더 거버넌스 기반 조성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아동 안전 지도 제작과 활용

여성 친화도시 시민강사가 안전지도 제작에 참여하는 것은 일반 강사가 안전지도를 제작 하는 것과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시민강사 측면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를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으로 만들어 가는 일은 지역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일이다. 그러므로 일반 강사가 안전지도를 제작하는 것 보다 여성 친화도시 관점을 가지고 오랜 시간 지역에서 활동한 시민 강사가 지도제작에 참여한다면 아동 여성의 안전을 위한 지역연대는 물론 시민이 원하는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한

아동안전지도 활용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시민 강사들은 지역 구성원의 안전의식 변화 과정을 인지하고 있어 효율적인 안전의식 고취와 범죄 대처 능력 또한 향상 시킬 수 있다.

협의체 측면에서 지역의 지속적인 환경개선 사업과 모니터링 사업등, 회원들의 경제활동 참여와 연계된 일들을 발굴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어머니폴리스나 학부모회등과 같은 단체와 함께 활동 하므로 협의체 활동에 관심이 많은 젊은 회원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협의체 홍보와 회원의 모집에도 효율적이다.

지역안전 측면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특수성을 잘 반영한 안전지도를 제작 할 수 있어 행정기관과 연계한 후속사업이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경찰관, 자율방범대, 주민자치단체 등의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지역의 안전관리가 원활해질 것이다. 개선 후 상황들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다음 사업에 반영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내 다른 지역으로 파급효과 또한 클 것으로 기대된다.

시흥시 여성친화도시 협의체는 초등학교 주변 위험 안전 환경요인을 직접 조사하여 지도화 하는 체험교육과정으로 아동안전지도 제작을 활성화 하였다. 안전지도는 범죄 위험 공간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범죄 대처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 사회 사회적 감시망을 형성, 사전 범죄 예방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013년 관내 36개 초등학교 중 35개교 865명의 학생이 참여하였고, 2014년 11개교 학생과 학부모 365명 이며 지도 제작후 교육은 11개교 전교생 및 학부모 8437명을 대상으로 하여 시민강사가 교육하였다. 지도제작에 참여한 학생 교사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 주변 안전, 위험 요인을 정확히 명시하여 아동 안전의식 향상에 도움이 되고 환경개선 및 향후 교육 자료로 활용 가능성이 높은 지도를 제작한 학교를 우수사례로 선정하여 수상하고 제작 보고회를 가졌다.

안전 지도 제작 결과를 지역연대 홈페이지에 업로드 하였고, 시흥시 경찰서와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여 안심 귀가 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기도 하였다. 지자체 건의 사항으로 가로등 설치, 위험지역 순찰강화, 아동지킴이 증설 등 8개분야 10개 관련 부서와 연계하여 100여건의 환경을 개선하였다. 특히 2013년에 안전지도 제작후 교내 중앙 현관에 한시적으로 전시하는 것에 아쉬움을 느껴 2014년 안전지도 활용 방안을 협의체 회원들이 추진하였다. 시민강사들은 병설 유치원생을 포함한 전교생을 대상으로 각 학교 실정에 맞추어 강당, 또는 방송을 통해 다시 한번 학교 주변 위험 환경을 인지하도록 교육 하였고, 교외 활동에서 지켜야 할 안전 수칙도 공지하였다. 전체 학부모 회의를 통해 후속 교육 및 여성 친화도시 홍보를 진행 하여 협의체 회원을 모집하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교사들의 업무 부담으로 안전지도 제작에 미 참여한 학교들은 역량이 강화된 시민 강사가 사전교육과 지도제작 및 후속 교육 전 과정을 직접 진행하였다. 시흥 교육청과 아동 안전지도 제작에 대한 사전 협의를 통해 학습과정과

연계 방안을 검토해 조정할 수 있도록 협조 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사업은 시흥시 여성친화도시가 추진 하는 ‘평등한 도시’ ‘건강한 도시’ ‘함께 만들어 가는 도시’ ‘안전한 도시’를 실현하는데 적합한 사업이라 생각한다. 또한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관심을 갖고 불편사항을 제안해주며 시흥시민이 더 행복하고 애착을 가지며 정주의식을 가질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여 시와 함께 나가는 시민의 역할이 강조되는 협의체 공모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진행 되기를 바란다.

안전사업에서 어떻게 시민참여를 지속 할 것인가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 고교, 지역아동센터의 안전지도 제작도 추진 중이다.

제작된 안전지도를 활용하여 중장기적으로 환경 개선이 필요한 곳에 ‘여성친화 시범 거리 사업’을 추진하여 정왕동 군서초등학교 주변일대 안전한 통학로를 설치하고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밤길 귀가를 위한 ‘노란별길 디자인 사업’으로 확대 하였다.

2015년 여성 친화도시 협의체 공모사업으로 정왕본동이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시비3억 도비2억) 추진하고 있다. 타 지역보다 강력범죄 발생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지역주민의 불안감이 증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업 또한 여성친화도시 협의체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아동 안전지도 제작을 활용한 사례이다. 이 사업을 위해 시민강사 및 협의체 회원들은 현장 야간 로드 체크, 고양시, 서울행운동 학습여행, 주민설명회, 전문기관 방문, 거버넌스 구축등 다양한 활동을 계속 하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를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마을로 만들어 가는 일은 여성 친화도시의 가치를 실현하는 지름길이다. 지속적인 안전 사업은 협의체 회원의 수를 늘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요즈음 시흥시 여성친화도시 협의체 회원 수가 늘어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회원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위해 협의체 회원 간 소통과 배려를 중시하는 문화가 확장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여성 친화도시 권역별 이야기 나눔터(시청권, 매화권, 대야권, 정왕권)를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행정기관은 시민 강사 양성과정을 개설하여 더 많은 협의체 회원이 지역의 리더로 성장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시민강사들의 지속적인 역량 강화를 위한 매월 인문학 특강, sns활용, 동영상제작 과정 등과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여성친화도시 협의체 활동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

이러한 활동은 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토론

토론문



- 박경자 (강릉시의회 의원)
- 박경란 (강릉시 여성친화도시 협의체,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강릉지회 사무국장)
- 이남희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
- 김옥란 (강릉시 여성가족과장)



여성친화도시 포럼 토론문 1



■ 박경자 (강릉시의회 의원)

강릉은 역사적 배경을 갖춘 도시로서 인구 21만 5천명 중 여성이 10만 8천명으로 50.3%를 차지하는 도시입니다. 오만원권 화폐에 등재된 신사임당(1504~1551)은 부모님에 대한 효심과 철저한 교육으로 조선시대 최고의 정치가, 대학자인 이율곡 선생님을 길러낸 대한민국의 현모양처이시며 시·초충도 등 그림·글씨에 능했던 여류 예술가이며, 허난설헌(1563~1589)은 허균(홍길동전 작가)의 누이동생으로서 당대의 세계적 여류시인으로서 중국과 일본에 더욱더 명성을 떨치셨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사임당로”와 “난설헌로” 도로가 명명되어 두 분 여성들의 업적을 역사와 함께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시대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후대를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신 두 분이 있는 것과 같이 강릉시는 예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타 도시보다 여성들에 대한 인식과 활동이 분출되어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친화도시의 취지는 잘 아시다시피 여성을 약자로만 보고 여성을 위한 배려와 편의제공 등의 보호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별 관계없이 모든 정책에 동등한 입장에서 반영하여 삶의 질을 높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릉시는 2010년 11월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이후부터 우선적으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공원 환경조성, 화장실개선, 범죄예방을 위한 CCTV설치 등을 지속 진행 해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시정에 여성을 생각하고 남성중심에서 남녀평등에 중점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한 여성공무원 승진면에서도 2010년 유리천장과 같았던 5급이상 여성공무원이 3명(4.8%)에서 2014년 9명(11.5%), 2015년 현재 12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성들에 대한 직무의 배치는 민원, 여성, 복지업무 등 분야에 중심으로 국한되어 있어 좀 더 포괄적이고 동등한 업무의 직책이 요구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각 책임자들의 의지가 필요하며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하기 위한 정책에 반영되어야 하며, 다문화여성과 성폭력피해여성, 장애여성등이 함께 포함 될 수 있어야 진정한 여성친화도시의 목적달성이 아니겠습니까?

여성의 권익보호에 따라 성매매, 성폭력에 노출되어 주변 환경으로부터의 따돌림의 현실들로부터 이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쉼터와 소통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가정폭력근절대책으로 “가정폭력알리미”등의 강릉시내의 지역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어 폭력으로부터의 지킴이 역할에 대한 시스템도 재 점검하여 시책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결정들은 시민, 특히 여성들이 직접 참여하여 무엇이 진실로 필요한가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어 강릉의 특성을 살려서 여성들의 욕구가 충족 될 수 있도록 귀 기울이고 관심을 갖고 무엇이 우선인지를 반영하여 추진해 나갈 때 더불어 여성친화도시로서의 목적을 달성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성일자리창출, 여성경제활동을 위한 인력개발, 여성복지증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회제공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여성친화도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지역내 여성들의 자원을 활용하고, 각 분야별 실무책임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미래지향적인 도시발전을 위해서 먼저 추진했던 사업들의 장. 단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여성들의 활동을 위한 동선이 편리하고 과학적 도시개발연구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출산과 육아교육 등의 사유로 부당한 해고를 당하면서 경력단절여성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일자리 창출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성들이 시간제 일자리라도 취업을 원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며, 시간제 일자리보다는 맞춤형일 자리를 만들어 자아를 실현하는 것은 가정의 행복과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안전한 보호와 귀가로 여성들이 마음 놓고 경제적 활동에 전념 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마련되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것이 안타깝고 지속적인 관심으로 빠른 시일내에 정착을 시켜야 할 것입니다.

성평등이 단순한 개념이 아니므로 형식적 평가보다는 성별·계층별 차이를 정확히 판단하여 평등성·다양성·자율성이 여성정책에 반영되어야 앞으로 여성을 사회적 동반자로서 바르게 인식하는 과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모든 정책에 양성평등정책을 보편화한 행정이 실행되고 평가되는 통합적 사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활성화 방안으로 강릉시의 여성친화도시 솔향강릉 시민참여단과 같은 적극적인 주민참여 및 젠더 거버넌스 구축, 법률정비 및 조례의 현실화, 중앙정부의 우선적 예산지원 확대, 관리체계 구축, 지자체의 적극적인 평가 분석 및 성인지 예산 등이 여성권익증진에 관심을 높이는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다행히 강릉시는 안정적인 기금마련을 위하여 2010년부터 2014년까지 1차 여성발전기금 10억을 조성 하였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20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으로 공모사업을 통하여 여성친화도시를 위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기금조성이 완료되면 더 많은 여성들에게 혜택과 여성친화 도시에 걸맞는 프로그램도 만들어 삶의 질 향상에 노력 할 것입니다.

미래지향적인 여성친화도시로 안착하고 여성권익 증진에 대한 관심이 계속되기를 바라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내일의 더 큰 꿈과 더 큰 희망을 향해 힘차게 뻗어가는 여성 모두들에게 박수를 보내며 여성 모두가 행복해 지는 그날까지 함께 합시다.

여성친화도시 포럼 토론문 2



■ 박경란 (강릉시 여성친화도시 협의체,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강릉지회 사무국장)

여성친화도시를 위해 보다 다양한 기초자료 확보 필요

지난 2010년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된 강릉시는 이후 여성 친화형 화장실 확충, 여성전용 주차장,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한 일자리 사업 지원 등 여성의 생활안전과 가족친화적인 문화 환경 조성, 여성들의 사회경제 활동 참여 확산 등을 위해 힘써왔다.

그러나 강릉시의 경우 여전히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가 낮을 뿐 아니라 해당 부서 담당자의 잦은 인사 등으로 각 사업부서와 지속적으로 협력체계를 갖추는데 한계가 있었다.

더욱이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된 도시들의 경우 강릉시 뿐만 아니라 여러 지자체들이 도시적 개념보다 정치적, 도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구심까지도 들 정도다.

최근 강릉시는 술향강릉 시민참여단이 새롭게 구성돼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역 리더, 알리미로서의 역할에 나섰다.

생활 속 불편사항들을 모니터해 개선방안 등을 제안하고, 여성친화도시를 홍보하고, 지역 곳곳을 모니터해 여성의 시각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문제점을 찾아내고 개선해나가는 데 앞장설 것이다.

그 첫 사업으로 현재 마을 안전지도가 제작되고 있다.

지역사정에 밝은 주민들이 지역의 안전 위험지대, 요소들을 지도로 제작해 여성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들이 수시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는 기존 여러 지자체에서 제작하고 있는 아동안전지도 보다 업그레이드 된 것으로 제작 범위를 학교 주변에서 마을로 확대했고, 지역주민이 주체가 된 생활밀착형 지도를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제작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공동화로 우범지대로 전락하고 있는 구도심의 경우 매우 중요한 자료이자 작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마을안전지도의 경우 제작 이후 활용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해 보인다.

단순히 지도에 우범지대와 편의시설, 위험요소 등을 표시하는데만 그칠 것이 아니라 긴급한 상황에 잠시 대피할 수 있는 안전지대(예를들어 편의점, 마을 슈퍼 등 늦은 시간까지 영업을 하는)를 표시해 귀가가 늦은 청소년, 여성들이 위기 상황에 대피할 수 있는 곳도 알려줘야 할 것이다. 이는 마을안전지도 제작 뿐만 아니라 활용 부분에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성과를 배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본인이 소속된 단체에서는 올해 강릉시 여성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어린이 놀이터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강릉 시내 도시공원, 아파트, 주택단지내 어린이 놀이터 93곳을 대상으로 모니터하는 사업과 비교적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놀이터 3곳을 선정해 놀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 등 2가지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먼저 어린이 놀이터 93곳을 모니터한 결과 유모차, 휠체어 진출입이 어려운 놀이터들이 적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아파트 단지 놀이터의 경우 건립 당시부터 토지이용율 등으로 인해 구석진 곳, 자투리 공간에 놀이터를 설치하는 등 준공 허가를 위한 최소한의 놀이터 면적을 확보해 공간 배치상 우범지대가 될 수 밖에 없는 놀이터도 적지 않았다.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은 의무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점검 여부 등을 표시하지 않은 곳도 대다수였다.

이처럼 우리 생활 주변 곳곳에는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매우 불편할 수 있는 문제점, 개선사항들이 수두룩하게 널려 있다.

따라서 안전하고, 편리하고, 쾌적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솔향강릉 시민참여단을 중심으로 보다 다양한 분야에 대한 모니터를 통한 기초자료가 확보돼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아는 만큼 보이 듯, 시민참여단의 참여 계층(연령, 직업 등)을 보다 다양화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역량을 강화해나가는 과정을 지켜봤으면 한다.

여성친화도시 포럼 토론문 3



■ 이남희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

1) 시민 참여: 지방자치의 성공 조건

- 21세기 정책에서 시민참여는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의 실현에 필요한 선행조건이자 성숙한 지방자치를 성공시키기 위한 필요조건. 현 정부의 140개 국정 과제에도 ‘지방분권 강화 및 시민사회·지역공동체 활성화’ 과제가 포함.
- 민주적 거버넌스를 위한 시민참여에서 무엇보다 어렵고도 중요한 것은 시민과 정부 간 상호존중, 상호협력, 파트너십 강화
- 여성친화도시 정책의 장점은 생활밀착 수준에서 시민참여를 실현하는 정책이며, 시민 개인과 단체, 공무원 사이의 네트워크가 그 어떤 정책보다 혁신적으로 일어나는 부문이라는 점
- ‘행복한 동행만들기, 여성친화도시 강릉!’ 슬로건을 내건 여성친화도시 솔향강릉 시민참여단의 활동은 그런 의미에서 모범적인 시민참여 사례
-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긋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발로 뛰는’ 회원분들의 노고가 지역에서 널리 알려지고 충분히 인정받기를 기대하며, 이 모임이 앞으로 확대·지속가능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열린 논의가 필요한 시점

2) 여성친화도시: 창조도시의 필수 조건

- 창조산업의 비중이 강조되는 21세기에는 정부도 다양성, 개방성을 중요하게 보고 있으며, 지역 거주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경제 발전에도 중요
- 현실적으로 취업과 가사, 육아, 돌봄까지 멀티 기능을 발휘하고 있으며 지역의 안전도에 가장 민감한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라면 아동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여러 세대가 살기 좋은 도시이며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가 된다는 여성친화도시의 기본 방향 및 취지는

창조도시와도 부합.

- 여성은 지역의 거주 선호도를 결정할 때 중요한 행위자인 동시에 창조산업의 주체. 따라서 최근 수년간 신도시개발과 행정복합도시 건설 및 도시재생에서 여성친화 요소는 비중 있는 고려 요소가 됨
- 강릉은 여성친화도시의 기반을 이미 조성한 지역이자 영동지역 창조도시의 거점으로 발돋움할 여건 조성 중인데 두 정책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모색 필요
- 지역 여건 모니터링 전문가로서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의 역량을 지역축제 등 여러 영역으로 확산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며, 적절한 예산 지원과 정책 환류 시스템 필요

3) 지역에서 다양성은 어떻게 실현되는가

- 누가, 얼마나, 무슨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느냐가 지역 발전 관점에서는 중요한 지표. 창조지수 중 중요한 지표를 차지하는 창조계급¹⁾의 거주 비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어 다양한 주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효과적
- * 사례 : 서울 마포 성미산마을, 일본 요코하마 고토부키, 신림동 고시촌의 변화
- 다양한 주민 참여는 단순히 골고루 섞어놓는 것으로 부족. 평소 마을에 거주하지만 대표성, 발언권을 표현해본 적이 없는 주민의 실질적 필요를 정책으로 반영하는 것
- 때로는 성별, 세대별 위계로 인해 발언할 기회를 잡지 못한 이들이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는 판을 따로 열어야 함
- 허난설헌을 기리고 계승하는 방식도 문중의 추모사업으로 진행할 때와 침묵으로 묻힌 여성의 역사를 복원하고 현대적으로 재현하는 사업일 때는 천양지차를 보일 수 있다. 두 가지가 두루 존중되면서 여러 주체가 억울함 없이 자기 목소리를 충분히 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솔향강릉 시민참여단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싶음

감사합니다.

1) 여기서 창조계급이란 구체적으로 과학자와 엔지니어, 프로그래머, 교수, 시인, 소설가, 예술가, 연예인, 배우, 디자이너, 건축가, 작가, 편집자, 문화계 종사자, 연구원, 분석가, 논평가 등 ‘순수 창조의 핵’이라 불리는 사람들과, 관리 경영 회계직, 법률직, 금융직, 전문의 및 보건의료직, 하이테크 업종 등 광범위한 지식집약형 산업에 종사하는 ‘창조적 전문가’들을 말하지만, 리처드 플로리다는 자신의 일에서 창조성을 발휘하여 경제적 이윤을 창출하고 있다면 그들 또한 창조적 계급이라고 함.(리처드 플로리다, 「신창조계급」)

여성친화도시 포럼 토론문 4



■ 김옥란 (강릉시 여성가족과장)

현재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가장 기본단위인 운영체제로 행정내부 주무부서, 주무부서와 사업부서, 시민참여단,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 등 이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은 행정과 민간의 상호작용에 근거하여 추진할 것을 기본적인 전제로 여성친화도시를 추진할 때는 지역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여성의 특수한 수요를 반영하는 등 젠더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지금까지 민간과의 협력은 주로 여성단체 또는 전문가를 통해 진행되어 왔으나,

여성친화도시 사업은 지역사회에서 실질적 여성 참여 확대를 통해서 젠더이슈를 중심으로 관(官)과의 갈등을 해결하고 협력을 통해 정책과정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면서 개선해 가는 과정 사업이다.

즉, 사업의 전 과정에서 지역거주 여성의 참여와 주인의식, 모니터링이 반드시 필요한 시민참여 행정의 새로운 모델이다.

여성친화도시의 민·관 협력 기반은 시민참여단과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로 연계, 협력과정을 추진하는 사업의 핵심역할을 한다.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는 관련 부서 및 기관, 전문가, 기업, 시의회, NGO 등 지역 내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 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주체가 참여하는 광범위한 협력체로 사업을 기획·공동 추진하는 단위라면, 시민참여단은 서로 다른 사회경제적·문화적 상황에 놓여있는 다양한 계층의 여성들이 실행그룹으로 활동하고 지역환경과 공공서비스 등에 대한 요구와 개입을 확산하자는 취지에서 조직되고 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의 구성은 여성친화도시 지정협약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구성되어 있거나 구성중인 상태이다. 하지만 시민참여단 구성은 개별 지정도시가 시민참여 기반에 의한 사업추진 방식을 선호하고 여성친화도시를 지역사회의 중심 이슈로 확산하고자 하는 의지와 일정부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지역적

차이를 보인다. 왜냐하면 시민에게 일상생활 관련 의제를 발굴해야 하는 역할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지역사회와 관련된 정보와 사업추진방법 등에 대한 폭넓은 경험이 전제되어야 적절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여성친화도시 지정도시들은 직접 지역사회를 관찰하고 그 결과를 토론하고 관련의견을 수렴하는 형태로 시민참여단 사업을 운영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오늘 포럼 주제의 사례발표를 하는 시흥시는 강릉시와 같은 2010년 여성친화 지정도시로서 ‘여성친화도시 시민자율카페’를 만들었고, 시민자율카페 회원들은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민원 발굴, 여성친화도시 조성과제 평가, 여성친화도시 사업예산 확보를 위한 의회 모니터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책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이 참여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 주력사업으로 시흥시 안전지도제작 사업을 추진하고 시민강사를 배출하는 등사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였다고 판단된다. 더불어, 시흥시 안전지도사업은 시청, 교육청, 경찰서와 업무협조를 추진하면서 관내 초등학교 학부모회, 어머니폴리스회, 자율방법대와 같은 연계된 주민조직이 사업에 참여하였다.

강릉시는 여성가족부 주관의 아동안전지도를 2013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강릉교육청, 관내 27개 초등학교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제작하고 있으며, 국민 안전처에서 주관하는 생활안전지도 4대 안전(치안, 교통, 재난, 맞춤형안전)분야에 2015년부터 PC 및 모바일을 이용하여 강릉시 정보를 제공하며, 특히 기존 아동안전지도와 생활안전지도에 더불어 안전/위험 지역이라는 이분법적인 구분이 아닌 불편/개선사항을 함께 조사하고 서비스대상에 아동을 포함한 여성,노약자,교통약자까지 확대하여 교통약자도 활용할 수 있는 픽토그램을 추가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전국에서 처음으로 확대되는 “마을안전 지도제작”을 한다. 이 사업은 통계정보 위주의 정보가 아닌 현장방문 직접조사 방법으로 구도심지역 2015년 시범제작에 이어 연차별 대상지역을 확대하게 되는데 여성친화도시 솔향강릉 시민참여단이 주축이 되어 주민이 직접 해당지역의 안전위해요소를 발굴하여 지도로 제작한다.

또한, “솔향강릉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은 2015.1.26.일에 정식 단체등록을 함으로서 2015년 새로운 전환기를 맞아 지역축제·행사시 현장 모니터링, 허균허난설헌 문학비주변 공원조성 등의 내용으로 강릉시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을 수행하며 모니터링 결과를 관련 부서에 개선토록 보고서 및 의견을 제출한다.

이처럼, 사업을 주도한 주체와 수행방식은 상이하지만 사업추진에 있어서 광범위한 협업이 발생하였고, 협업 주체 간 자원교환이 활성화되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데 이것을 가능토록 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사업 주체들이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을 추진하였다는 점이다.

향후, 시민참여단은 지역사회 생활 불편 및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개선과제를 제시하는 역할부터 시정 사업의 성인지적 개선 의견제안 과 마을단위사업을 추진하는 역할까지 필요하다. 그러려면 개선과제를 제안할 수 있도록 각종 자기활동을 하는 지원사업 프로그램과 워크숍, 간담회, 지속적 교육까지 병행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최유진(2014). 여성친화도시 조성 단계별 추진체계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Memo

Memo





Memo
